

우리나라 水産金融의 問題點과 그 改善策에 關하여

On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 Measures of Fisheries Financing in Korea

金 敬 浩

Kyeong Ho Kim

<目 次>

- | | |
|-----------------------------|--------------------------|
| I. 序 言 | 4. 漁業生産의 不確實性和 資本制限 |
| II. 水産金融의 重要性 | 5. 水産業과 高利貸資本 |
| 1. 商品, 貨幣經濟의 發達과 漁業資本需要의 增大 | IV. 水産金融의 構造와 體系 |
| 2. 漁業經營改善을 위한 漁業資金의 必要性 | 1. 水産金融의 種類 |
| III. 水産金融의 特質 | 2. 融資體系의 變遷過程 |
| 1. 低收益性 | 3. 우리나라 水産金融資金의 構成 |
| 2. 資本需要의 季節性 | V. 우리나라 水産金融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
| 3. 擔保力의 脆弱性 | VI. 結 言 |

I. 序 言

資本主義經濟에 이르러 經濟主體側에 家計와 企業과의 分化가 徹底히 일어나고, 經濟財側에 商品과 貨幣의 分裂이 일어났다. 이리하여 流通經濟는 一面으로 보면 貨幣經濟이고, 다른 面으로 보면 商品經濟이다. 여기에 이르러 生産과 消費 사이의 自然的 紐帶는 完全히 끊어지고 兩者를 結付시키는 交換이 發生함에 따라 經濟現象은 恒常 實物과 貨幣의 二面性을 지니고 있다. 實物의 變動은 貨幣面을 變動시키고, 다시 貨幣의 側面에서 일어나는 變化는 그대로 實物의 規模와 構成의 變化에 忠實하게 反映된다. 現代經濟社會에 있어서 實物經濟에 미치는 貨幣의 이러한 作用에 대한 重視가 財政金融政策 등 貨幣的 操作의 意義를 높이기 된 理由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資金의 供給 또는 去來나, 金利, 金融機構, 金融制度 등 金融問題는 直接 生産活動을 左右乃至 規制하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水産金融의 緩急, 資金의 供給狀況, 資金構造의 變動이 水産業發展에 커다란 影響을 미치게 되는 再言할 必要가 있다. 그것은 어떤 意味에서 우리나라 水産業發展은 水産金融制度의 改善 및 發展, 資金事情의 好轉이라는 事實의 實物的 或은 物量의 反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本稿에서는 水産業發展을 促進케한 水産金融現象의 歷史的 變遷過程을 살피고, 나아가서 水産金融의 重要性과 그 機能을 分析하여 우리나라 水産金融의 問題點을 剔扶하여 그 改善策에 關係시 考察하고자 한다.

II. 水産金融의 重要性

資本主義經濟社會에 있어서의 모든 經濟活動은 商品生産의 世界에 있어 貨幣를 媒介로 하여 이루어 진다. 漁業生産者도 이 媒介物을 通하여 貨幣의 流通過程에 一定數量을 投入함으로써 供給者가 되고 다시 一定數量을 여기에서 購入함으로써 需要者가 된다. 이러한 生産과 消費의 圓滑한 循環運動을 위해 水産業이 어떤 形態로서 經營되든 間에 기기에는 다음과 같은 理由로서 一定한 資金이 必要하게 된다.

① 收入과 支出의 時差에서 資金의 必要性이 發生하는데 이 點은 生産을 위해 先 支出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即 營業資金, 漁船漁網補修資金 등 生産을 위한 支出이 不可避한데 反하여 生産物의 販賣에 의한 收入은 時期的으로 一致하지 않다. 더욱이 循環軌道가 同一規模로서 行해지는 靜態的 經營狀態의 境遇에 있어서도 水産業의 季節性 때문에 收入은 年中을 通해서 不規則的이고 斷續的인데 反하여 支出은 比較的 連續的이므로 收入과 支出은 時期的으로 一致되지 않고 差異가 생긴다.¹⁾

② 靜態的 經營狀態下에서 動態的 經營狀態 即 漁船의 大規模化와 動力化 및 裝備의 近代化 或은 養殖場의 擴大, 製造加工工場의 施設과 擴充 등 經營規模의 擴大를 通하여 靜態的 經營狀態를 打破하고 商品生産을 擴大코자 할 때이다. 이는 水産業發展과 近代化에 必然的으로 隨伴되는 現象이다.

③ 資本制商品生産에 의해서 自給自足經濟가 止揚되고, 社會的 分業과 職業的 分化가 完成되어 市場經濟가 支配的인 形態로서 一般化된, 現代와 같이 發達한 交換經濟社會에 있어서는 모든 財貨는 商品으로서 生産된다. 이러한 社會에서는 一旦 市場經濟에 휩쓸리게 되면 家計의 消費生活은 여기에서 離脫하여 生活한다는 것은 困難하다. 그러므로 漁家도 都市家計와 같이 大部分의 商品을 市場에서 購入해야 하며, 그 必要性은 漸次 높아진다. 生産物을 販賣하여 生活資料를 購入하던 것이 이제 이를 購入키 위하여 生産해야 하고 販賣하여야 한다. 所謂 支出에 대한 比較的으로 連續的 要求를 느끼게 되나²⁾ 既述한 內容과 水産經營의 不確性으로 말미암아 이 要求는 斷續的으로 強해진다.

1) 金仁台·朴九秉, 水産經濟論, 1963, p. 232.

2) 貨幣經濟가 農漁村을 支配하게 되는 過程은 金納制와 商品經濟의 發達과 더불어 이 必要를 充當하기 위한 貨幣需要를 誘發하게 됨은 周知의 事實이다. 이것이 貨幣經濟와 商品經濟에 휩쓸려 감에 따라 欲望을 充足시키기 위한 보다 많은 貨幣所得을 위하여 農漁民 스스로가 商品經濟속에 積極的으로 適應하게 된다. 即 보다 많은 商品生産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水産金融의 問題點과 그 改善策에 關하여

④ 租稅 등 公課에 대한 支拂이다. 租稅制度가 現物稅 代身에 金納制로 된 現代社會에 있어서는 모든 公課金을 納付키 위하여 漁家は 每年 定期的으로 一定額의 貨幣를 必要로 한다.

⑤ 이 以外에 定期的 支拂項目으로서 教育費가 지니는 比重 또한 無視할 수 없을 程度로 높다.³⁾ 이와 같이 資金에 대한 需要는 資本主義經濟의 發展과 더불어 그리고 水産業의 特殊性에 의해서 強하게 나타나며, 여기에 農村에 비해 漁村이 貨幣經濟化의 程度가 比較的 높은 所以가 있는 것이다 하겠다.⁴⁾

1. 商品, 貨幣經濟의 發達과 漁業資本需要의 増大

漁業生産者는 自己의 勞動生産物의 一部를 家計消費과 再生産活動에 充當한다. 말하자면 生産物의 販賣代金으로 家計를 維持하는 한편, 生産活動에 必要한 生産手段을 購入하여 다시 再生産活動을 한다. 이와 같이 漁業生産者 亦是 經營과 家計를 營爲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一定한 資金이 必要하다.

自給自足的인 自然經濟時代의 初期의 自給의 段階에 있어서는 生産의 目的이 自己消費였고 그것이 進展되어 物物交換時代에 들어와서는 物品과 物品의 直接的인 交換에 그쳤기 때문에 交換手段으로서의 貨幣는 存在치 않았다. 따라서 資金의 需要도 있을터 萬無하며, 또한 水産金融問題도 發生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國民經濟가 貨幣經濟, 信用經濟로 發展됨에 따라 自己가 必要로 하는 財貨는 거의 交換에 의해서 얻어야 한다. 自己가 일해서 消費物資를 直接生産하여 얻는 範圍란 極히 制限되어 있다.⁵⁾ 이러한 段階에서 自己가 必要한 各種 生産用役을 自己의 貨幣所得에서 購入하여 自己의 生産에 充當해야 함으로 資金이 必要하다. 이 資金의 必要現象이 發生되면 金融에 의한 資金의 需給이 自然히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貨幣經濟 및 信用經濟의 發達에 따라 漁業資金의 必要性도 漸次 増大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商工業의 發達は 漁業生産者의 外部로 부터의 財貨調達을 더욱 促進시킨다. 自給自足の 時代로부터 商品生産이 發達되어 生産活動을 위한 生産手段 및 各種 資材 또는 生活資料를 他人의 生産物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는 現代經濟社會에 있어서는 어떤 種類의 生産이든 消費이든 間에 이를 購入키 위해서는 一定한 資金이 所要된다. 그러므로 漁業生産者는 生産에 專念해야 하게 되고, 또 그것을 合理化해서 많은 貨幣所得을 일는데 그들의 目的을 두게 되어 漁業資金의 必要度는 더 한층 높게 되는 것이다.

3) 金仁台·朴九乘, 前掲書, p. 234.

4) 農業에 있어서는 主食, 副食, 依賴 物 自然度가 높으므로 市場經濟의 依存度가 낮은데 비하여 漁業은 生産手段에서 生活資料에 이르기 까지 이를 他人의 生産物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다. 即 市場經濟의 依存度가 越等히 높으며 따라서 貨幣經濟化의 程度 또는 現金支出의 比率이 높다. 日本은 이 比率이 農業이 65%인데 反하여 漁業은 95%에 달하고 있다. 近藤康男編, 日本漁業의 經濟構造, 1956. p. 284.

5) 金潤煥, 新經濟原論, 1973. p. 219.

2. 漁業經營改善을 위한 漁業資金의 必要性

① 現下 漁業生産者는 生産을 增大하여 最大限의 收入을 얻기 위하여 經營을 改善하고 合理化할 必要가 있다. 卽 漁業經營改善을 위해 漁具·漁法의 改良, 漁業用機械器具의 改良 등이 要求된다. 이를 위해 資金이 있어야 하고 따라서 漁業資金의 必要性이 더해진다.

② 뿐만 아니라 生産의 增大는 經營合理化에 依存하는 바 크다. 그러나 生産의 增大는 決코 漁業經營의 合理化에 局限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것은 漁場의 外延的 擴大 또한 漁業生産의 增大에 無視할 수 없는 要件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理由로 漁業經營規模의 擴大에도 많은 資金이 必要하고 따라서 이를 위한 漁業資金의 必要가 增加한다.

③ 元來 水産業은 強力한 自然的 恣意性으로 말미암아 他産業에 비해 投機的 産業임을 免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自然的 條件은 漁業에 固着된 屬性은 아니며 資本的, 技術的 構成如何에 따라 어느 程度 克服할 수 있는 問題이다. 허나 우리나라와 같이 沿岸需細漁家가 漁業經濟構造의 廣範한 基礎를 이루고 多數를 占하고 있는 後進漁業國에 있어서는 아직도 이를 完全히 克服치 못하고 있는 實情이므로 水産業의 投機的 性格과 漁業의 季節性에서 오는 不安定性을 어느 程度 克服키 위해 漁業經營의 多角化는 現實的으로 必要하다. 卽 海面漁業도 魚種에 따르는 季節的인 休漁期를 他種目的 漁業을 多角的으로 經營하든가 或은 海面漁業과 養殖業, 蓄養業, 製造加工業을 經營함으로써 一種目에만 集中하는 從에서 오는 危險을 分散, 緩和할 수 있으며 따라서 經營의 安定性을 높일 수 있다.⁶⁾

④ 漁家は 必要生産資材와 生活用品의 自家生産에의 依存度가 漸次 低下되고 있다.⁷⁾ 그러나 問題는 그들의 協同組織에 의해 生産과 販賣가 어느 程度 可能할 것으로 본다. 協同組合의 組織에 의한 共同生産, 共同販賣가 바로 그것이다. 協同된 資本이 크면 할수록 그 可能性이 키지는 것이다. 이 點 亦是 巨大한 資金이 所要되고, 따라서 漁業資金의 重要性을 한층 더 要求하는 一要因이 되고 있는 것이다.⁸⁾

以上은 商品貨幣經濟의 發達과 漁業經營改善의 合理化를 위한 資金의 必要性을 大略 指摘한 것이나 이 外에 漁業經營의 客觀的 條件의 變化에서 發生하는 資金의 必要性도 또한 無視할 수 없는 問題이다. 近來에 와서 水産業, 特히 漁業은 어느나라를 莫論하고 하나의 産業으로서 다른 産業과 有機的 關係를 맺고 있다. 우리나라 水産業도 近代産業의 發達에 刺戟을 받아 漸次 近代經營原則에 따른 經營形態로 變貌해 가는 過程을 밟고 있다. 經濟發展의 歷史的 過程을 簡單히 살펴보면 自給經濟의 初期에는 自給自足으로 足했고 外部로 부터 供給의 必要性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自給經濟의 段階를 거쳐 物物交換의 段階에 이르러

6) 釜山水産大學, 釜山水産大學研究報告, 第6卷, 第2號, 1965, (社會科學編), p. 17.

7) 朴東奎, 農業金融, 1965, p. 44.

8) 이것은 事業種目이 附加되고 經營規模가 擴大되는 것을 意味한다. 따라서 所要資金이 增大하는 것은 두 말할 必要가 있다.

우리나라 水産金融의 問題點과 그 改善策에 關하여

서는 部落內의 各經濟單位는 各自의 生産物의 過不足을 서로 交換해서 使用하는데 不過했다. 勿論 當時의 交換은 生産을 前提로 限 交換은 存在치 않았으나 그 交換의 範圍가 漸次 自己部落 以外의 地域으로 擴大되자 生産은 他人의 必要物品이 如何한 것인가, 다시 말하면 交換의 可能性과 容易性이라는 것을 考慮해 가면서 生産活動을 展開하는 段階로 前進되었다. 그것은 다시 貨幣가 交換의 媒介物로서 發揚한 貨幣經濟의 段階로 發展되자 漁家經濟 亦是 自己生産을 爲主로 하면서 交換의 容易性만을 考慮하는 따위의 單純한 것이 아니라 生産物의 處分에 의하여 如何히 貨幣所得을 보다 많이 形成할 수 있는가에 目的을 두고 生産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經濟의 發達에 따라 水産業은 다른 産業과 有機的 關係下에 營爲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漁業도 비록 그 速度는 늦지만 하나의 産業으로서 다른 産業과 같이 利潤을 獲得하려고 하는 經營形態로 漸次 變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前資本主義社會에서는 單純히 生存 및 生計維持를 위한 自己生産의인 漁業經營이 商品生産을 前提로 限 經營으로 移行하게 되었다. 그러나 現在 우리나라 漁業의 一部에서는 小數의 資本制的 漁業이 存在하고, 다른 一部에서는 아직도 半自給自足的인 零細經營이 多數를 占하고 있는 實情이다. 말하자면 半自給自足的 經營要素와 企業經營的 要素가 併存하고 있다고 하겠다. 漁業이 近代經營으로 轉換하면서부터 機械·裝備의 利用度는 勿論 生産物의 商品性을 높이기 위한 製造加工 등 流通機構도 以前에 比하여 크게 改善되었다. 自給自足을 目的으로 하는 自然經濟時代에 있어서는 全然 찾아볼 수 없었던 이러한 傾向은 資本主義經濟가 發達될수록 더욱 促進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이 生産의 增加를 위해서는 經營方法과 技術이 改善되고 機械·器具 등이 具備되어야 하며, 生産物의 有利한 販賣를 위해서는 于先 商品性을 높이기 위한 水産物處理加工施設 등을 비롯하여 運搬船 등도 具備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漁業生産에 있어서도 다른 産業과 같이 經營을 近代化하면 할수록 이에 따른 漁業資金의 必要性도 더 커져 간다. 이에 따라 漁業資金도 漁業生産活動에 있어 重要한 要件으로 發揚하게 되며, 더욱이 信用經濟의 물결이 세차게 國民經濟에 波及되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는 水産業도 信用에 의한 資金의 獲得이 더욱 重要한 問題로서 提起되게 되는 것이다. 信用經濟에 있어서는 大部分의 生産者는 信用으로서 經營에 必要한 資金을 일어 有利한 經營을 하는 것이 原則이다. 漁業生産도 經營者가 生産要素를 技術적으로 結合하여 生産力을 發揮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于先 自己資金을 이에 投資하고 不足한 資金은 外部信用에 의해서 調達하여 經營을 擴大 乃至 改善하지 않으면 안된다.

Ⅲ. 水産金融의 特質

1. 低收益性

水産物 特히 魚類는 그 屬性인 強腐敗性으로 말미암아 다른 工産品에 比해 劣等한 位置

에 있다. 水産物의 商品價値가 鮮度에 比例함에도 不拘하고 그 品質은 腐敗性이 顯하다는 化學的 性質로 말미암아 漁業生産者는 價格形成에 對應한 供給調節을 自由롭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生産濫剩에 의한 價格暴落에도 販賣을 遲延시킬 수 없으며, 即時 處分할 수 없는데서 오는 損失을 免할 수 없다. 冷凍冷藏施設에도 限界가 있을뿐만 아니라 많은 經費가 所要되므로 이것을 使用하는 것도 將來의 價格豫測과 費用에 의해서 一定한 限界가 있음은 否認할 수 없다. 그리고 生産者가 大概 孤立分散的인 零細經營者라는 點에서 漁獲物의 即刻的 處分을 必要로 하는 階層이므로 더욱 供給調節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意味에서 水産物의 商品의 特質에 起因하는 緊急販賣의 必要性으로 말미암아 生産地市場의 價格形成은 低位에 머물게 되고 資本이 零細하다는 理由 때문에 流通過程에도 介入할 수 없게 되어 消費市場에서의 商業利潤을 獲得할 수 없게 된다. 即 生産地市場과 消費市場과의 價格形成의 激甚한 差로 因하여 漁業生産은 低收益性을 벗어날 수 없다.⁹⁾

2. 資金需要의 季節性

漁業은 自然을 對象으로 하기 때문에 生産活動에 있어 季節的인 差가 甚하다. 다시 말하면 生産作業에 있어서의 生産活動의 強度가 漁期와 漁種에 따라 各 季節別로 다르다. 그러므로 資金의 需要도 漁業은 盛漁期와 休漁期로 區分하나 資金全體로 보면 年中 一定한 資金의 需要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漁業信用의 必要時期와 不必要時期가 發生한다. 이것이 商工信用의 境遇와 크게 다른 點이다. 商工業에서는 商品需要의 季節性에 따라 生産 또는 取扱의 品種에 있어 그 內容이 若干 다르나, 資金의 需要規模에 있어서는 年中을 通해 그다지 큰 起伏은 없다. 따라서 企業의 總體的인 規模가 縮小되지 않는 限 商工信用의 規模는 平均된 것으로 나타날 것이고 企業의 總體的인 規模가 擴大됨에 따라 資金需要는 上升「커브」를 그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漁業信用에 있어서는 盛漁期에 따라 많은 起伏이 나타난다. 漁業의 總體的인 規模가 擴大되면 季節的인 起伏의 幅이 커질 뿐이다. 다만 漁業內容에 있어 多角化가 促進되면 될수록 總資金需要量의 增加에도 不拘하고 그 起伏의 幅은 그대로 維持되거나 또는 오히려 減少될 것이다. 그것은 商工資金과 같이 平均的인 需要를 일으키는 同時에 그것에 의한 貨幣收入이 資金의 供給을 抑制하는 役割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漁業信用과 商工信用間의 季節性의 差異는 明白히 다르다. 이와 같이 漁業信用은 季節性을 가지고 있을뿐 아니라, 漁業生産者 間에 需要의 競爭이 季節마다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漁業信用의 特性인 것이며, 따라서 漁業生産者 相互間의 時間的으로 본 資金의 有無相通에 期待하기란 相當히 어렵다고 보아야 옳다. 그러나 漁業生産者의 資本蓄積이 進行되면 그것도 어느 程度는 可能해 진다. 如何든 現在狀態에서 漁業信用의 圓滑한 機能

9) 農林部水産局, 水産物의 流通檢況, pp. 26-27.

우리나라 水産金融의 問題點과 그 改善策에 關하여

遂行을 期할려면 水協中央會가 中央金融市場과의 連繫을 더욱 緊密하게 이룩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3. 擔保力の 脆弱性

우리나라 漁業生産者는 그 經營規模가 貧弱하는데 共通性을 가지고 있다. 中小漁業生産者 特히 零細漁業生産者 일수록 自己蓄積資本은 없고 따라서 漁業信用에 의한 資金供給이 더욱 切實하다. 그런데 그들은 擔保의 提供能力 또한 弱하다. 漁業經營에 있어서의 生産手段인 漁船 漁具는 操業場所가 水界라는 點에서 自然災害에 의한 流失 또는 破損을 입기 쉬우므로 價値保全이 不充分하고 따라서 銀行의 擔保로서 不適當하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게 必要한 資金을 供給하는데 있어서는 擔保없이 信用을 供與하는 措置가 要請된다. 다시 말하자면 自己의 勞動生産物을 處分해서 償還토록 하는 이른바 對人信用에 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點에서 商工業의 境遇와는 크게 다르다.¹⁰⁾ 工業에 있어서는 施設에서 擔保除力이 생길 수 있고 또 原料나 製品을 擔保로 할 수 있다. 商業도 亦是 商品이 擔保가 된다. 原料나 製品 사이의 生産過程이 大體로 짧기 때문에 工業에서는 可能하나 漁業에서 擔保가 可能한 것은 겨우 漁船 程度인데 그것은 擔保取得의 技術上 어려운 點이 없지 않다.¹¹⁾ 商工業에 있어서 그것이 個人企業일 境遇 個人의 住宅도 擔保提供에 있어 重要한 補充役割을 한다. 그러나 漁業生産者의 境遇에는 그것을 期待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短期資金의 信用供與에 있어서는 對人信用을 原則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漁業信用의 特異性은 相互組織에 의한 信用供與를 摸索케 하고 있다. 그것에 의해야만 個別漁家의 脆弱한 信用이 補充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漁業生産의 不確實성과 資本制限

以上에서 본바와 같이 水産業은 그것이 如何한 形態로서 經營되든 間에 거기에는 一定한 資金을 必要로 한다. 그리고 水産金融은 이러한 水産資金의 去來를 意味하며, 漁業生産者가 스스로 餘裕있는 資金을 所有한 境遇에는 別로 資金의 去來라는 問題는 發生치 않으나 그렇치 못한 境遇에는 外部에서 資金의 供給을 받지 않으면 水産經營은 困難하다. 여기에 資金이 마치 商品과 같이 去來의 對象이 되고, 水産金融의 問題를 發生케 하는 所以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水産金融의 問題는 去來對象인 水産資金의 性質을 究明함으로써 明白해 진다. 그것은 特히 水産金融으로서 問題로하는 境遇, 水産金融이 一般資金에 대하여

10) 一般銀行金融과 組合金融의 가장 根本的인 差異가 一般銀行이 그것이 擔保라는 것에 立脚한 對物信用인데 對하여 組合은 組合員이라는 人格에 依據한 對人信用이라 할 수 있다.

11) 張設鎔, 水産經營學, 1966. p. 339.

特殊한 性質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特殊性이 自然히 資金去來에 있어서도 一般의 境遇와 相異한 性質을 띠게 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水産金融은 周知한 바 같이 水産經營에 使用되고 水産經營을 위한 資金이므로 이 資金의 特質은 漁業生産의 性質에 規定되어 依存하고 있다는 것을 認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水産業은 技術的(또는 産出) 不確實性和 價格不確實性으로 因하여 生産이 大端히 不確實하다.¹²⁾ 前者는 一生産期間에 있어서 天候의 變動, 病蟲害, 魚群洄游量의 變動 등의 豫測할 수 없는 事件의 發生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後者는 販賣되는 生産物價格의 豫期할 수 없는 變動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水産業에 있어서는 이 不確實性 때문에 크게 不利한 影響을 받으며, 그로 因해 資本調達에도 큰 支障을 가져온다. 勿論 大規模의 資本制漁業經營에서는 株式公募에 의한 資金調達が 可能하다고는 하겠으나 非資本制的 漁業經營에서는 株式公募 以外的 다른 여러가지 形態의 融資에 依存할 수 밖에 없다. 定期的으로 利子를 支拂해야 하는 他人資本에 크게 依存하는 境遇에 있어서 不確實性으로 말미암은 豫期치 않았던 損失의 發生 또는 倒産은 漁業生産者에게 致命的인 打撃을 줄 뿐만 아니라 貸付機關에게도 損害를 입히기 쉽다. 이러한 危險性에 敏感한 銀行을 비롯한 金融機關은 元利金의 損失을 避하기 위하여 漁業生産者에 대한 貸付를 꺼리게 되는 것은 當然한 것이며, 貸付를 한다 하더라도 金融에 制限을 加하고, 貸付金利도 保險料의 性格을 띤 것을 合하여 高金利를 要求하게 된다. 또한 貸付期間도 짧아 短期融資에 置重된다. 水産業生産에는 不確定的 要因이 많기 때문에 金融機關은 危險負擔을 豫想하여 高率의 利子를 要求할 뿐만 아니라, 貸付金融에도 制限을 加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資本市場의 不完全에서 發生하는 資本制限 中的 外的資本制限이다.¹³⁾ 漁業生産者는 外的資本制限 때문에 金融機關으로부터 資金借入이 困難하나 資金을 借入할 수 있는 境遇라 할지라도 不確實性이 除去되지 않는 限 失敗와 倒産의 危險이 따르므로 果然 利子를 定期的으로 納付하고 元金を 確實히 辨濟할 수 있을가 하는 危惧心에서 借入을 꺼리는 傾向이 있다. 심지어 自己資金에 充分한 餘裕가 있을 때에도 亦是 그러한 危險 때문에 水産業外의 다른 部門에서 보다 安全한 投資機會를 찾으려는 傾向마저 있다. 이것이 다름 아닌 內的資本制限이다.¹⁴⁾ 다시 말하면 資本制限은 經濟的 不安定으로 말미암아 漁業生産者 自身の 消極的 保守的인 事業計劃에 의한 借入의 抑制 또는 自制에서 오는 內的制限과 追加資金의 借入을 希望하여도 金融機關이 元利金償還의 不確實性으로 말미암아 貸出에 應하지 않는 外的制限이 있으나 如何튼 이와 같은 資本制限現象은 漁業의 經濟的 不安定 即 漁業生産의 不確實性으로 因하여 強하게 作用되고 있다는 것을 明確하게 알 수 있다. 貸付

12) 朴九秉, 釜山水産大學大學院, 經濟學博士學位請求論文, 農水産物價格安定支持策에 關한 研究, 1973. p. 30에서 不確實性을 技術的(또는 産出) 不確實性和 價格不確實性으로 大別하고 있다.

13) 朴九秉, 前掲書, p. 30.

14) 朴九秉, 前掲書, p. 31.

우리나라 水産金融의 問題點과 그 改善策에 關하여

資金이 크게 制限되어 있는 後進國일수록 外的資本制限問題는 深刻하다. 그리고 農水産業 中에서도 特히 水産業에 있어서 더욱 深刻하다.¹⁵⁾ 外的資本制限에 의한 資金硬塞이 水産業 生産의 큰 障礙가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漁業生産者에 대한 資金의 借入은 金融機關, 漁協 및 高利貸金業者이나 特히 擔保力이 貧弱한 漁業 生産者는 金融機關의 融資對象에서 除外되고, 漁協의 零細資金과 客主資金이 主가 된다.¹⁶⁾ 그리고 漁協資金의 融資額에 좁은 限界가 있는 以上 그 大部分을 客主 등 高利貸金業者에 依存할 수 밖에 있게 된다. 이와 같이 生産의 不確實性으로 因하여 漁業生産者는 資本制限을 嚴格히 받고 있다고 하겠다.

5. 水産業과 高利貸資本

1) 高利貸資本의 特質

金融組織 或은 金融制度는 生産樣式의 歴史的인 發展에 따라서 變化하여 왔다. 元來 貨幣을 貸付하여 利子를 取得하는 所謂 金融이라는 行爲는 이미 資本主義以前의 社會에도 存在하고 있었다. 그것은 資本制以前에 있어서 利子付資本의 古典的인 形態로서 存在했다.

近代的 貸付資本과 前近代的 高利貸資本과의 差異는 單純히 利子の 高低에 의해 區別될 것이 아니고, 基本的으로 이 兩形態가 서로 相異하는 社會經濟의 基礎위에 寄生하고 있는 點이다. 具體的으로 보면 封建社會에 있어서의 高利貸資本의 受信者가 封建領主나 小商品生産者, 農民 등이 있는데 反하여 近代的인 貸付資本은 産業資本家를 相對로 한다는 關係를 나타내고 있다.¹⁷⁾ 그러므로 近代的인 貸付資本이든 前近代的인 高利貸資本이든 間에 貨幣를 一時的으로 貸付하여 그 使用에 대한 利子를 取得한다는 點에서는 同一하다. 그러나 高利貸資本은 前資本主義經濟下의 借用者의 全剩餘生産物을 占有하고 때로는 必要生産物의 一部를 占有 寄生하고 있다는 點에서 根本的으로 相異한 性格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高利貸資本이 存在하는 基盤은 生産樣式이 資本主義經濟에 까지 發展하지 않고 生産物이 商品에 轉化되어 이로 因한 商品去來의 發達과 貨幣經濟가 어느 程度 浸透되어 있다고 하는 前資本主義의 生産樣式이 그 溫床이 되어 있는 것이다. 前資本主義의 生産樣式下에 있어서의 高利貸資本은 一般的으로 두 階層의 對象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豪華로운 消費의 豪族(本質的으로는 土地所有者)에 대한 高利貸資本이고

둘째는 自己의 勞動條件의 所有者인 小生産者에 대한 高利貸付이다. 이 小生産者 中에는 零細漁民들과 農民들이 包含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社會에 있어서는 借入된 貨幣는 資本으로서 機能을 하지 않고 大部分 家計消費에 充當되고 만다. 그러므로 이러한 借用者

15) 朴九乘, 前掲書, p. 30.

16) 金仁合·朴九乘, 前掲書, pp. 236-233.

17) 이것은 近代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는 高利貸資本이 存在한다는 意味가 아니고 다만 中世封建社會에서 支配의 存在形態였던 高利貸資本의 地位가 轉落되고 近代的 貸付資本의 支配의 存在形態가 되었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따라서 高利貸資本은 그것이 存立할 수 있는 基盤이 存在하는 限 存在하고 또 存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 한번 高利貸資本의 毒牙에 걸리면 그들은 여기에서 빠져 나갈 수 없게 되어, 높은 利子
는 그의 剩餘生産物을 全部 吸收되어 그 手中에는 다만 生活資料만을 남길 뿐이다. 이로
인하여 借金은 反復되고 債務는 增大傾向을 밟아 小生産者는 終局的으로는 沒落하고 만다.
이와 같이 高利貸資本은 商品生産을 發展시키는 것이 아니고 不當하게 高率의 利子를 徵收
함으로써 商品生産을 破滅시킨다. 이와 같이 高利貸資本에 의한 全剩餘生産物의 吸收는 오
히려 高利貸資本家自身の 生存의 存立基盤인 小生産者를 破壞함으로써 그 自身の 發展을
停止케 하여 舊來의 形態로서 寄生物的 生存을 繼續하든가, 아니면 다른 새로운 形態로 轉
換하든가 하는 兩者擇一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되었다. 結局 小生産者가 破滅하면 高利貸
資本의 寄生基盤이 없어지게 되므로 高利貸資本家는 零細한 小生産者의 存立을 繼續 維持
시키려고 努力할 것이다. 이와 같이 歴史的 社會經濟的 條件에 의해서 近代信用制度가 高
利貸業에 대한 反動으로서 生成 發達되었다. 近代信用制度는 貨幣의 貸付者와 借用者 間에
銀行이 介在함으로써 組織化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重要的 것은 借用者의 性格이 根本
的으로 變化하고 借用者는 그 自身이 資本家이며 借入한 貨幣를 資本으로서 利用하고, 따
라서 利子는 그의 剩餘價値의 實現에 의해서 얻어진 利潤의 一部에서 支拂할 수 있게 된
다. 이러한 利子는 社會的 平均利潤의 範圍 내에서 平均的인 利子率로 되어 나타난다.

2) 水産金融과 前期的 商業資本

漁業에 있어서는 不斷히 資金을 必要로 하나 自己資金의 充分한 蓄積이 없는 限 이물 外
部에서 調達해야 한다. 여기에 水産金融問題가 發生하는 것이다. 水産業 특히 漁業은 生産
의 場所가 水界이고 勞動對象의 大部分이 移動性動物이라고 하는 自然的 條件이 生産을 不
確實케 하고 漁業經營의 不安定性을 完全히 除去할 수 없게 한다. 게다가 漁獲物의 商品의
脆弱性으로 말미암아 現在 投機的 産業으로서의 性格을 蟬脫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非資本的 漁業의 特有한 性格으로 말미암아 水産金融이 一般金融에 比하여 相異한 性質
을 가지게 된다.

前述한 바와 같이 貸付資本은 原則적으로 利潤發生이 確實하고 安全한 産業部門에 集中
하므로 水産業에는 資金流入이 困難하다. 특히 大部分의 漁業을 非資本制의 生産方法에 의
해 營爲하는 漁家에는 貸付資本의 流入은 極히 制限된다. 그러나 市場經濟를 前提로 限 資
本主義經濟下에 生産을 營爲한다는 것은 不可避的으로 一定資金을 必要로 하나, 自己資本
의 蓄積과 貸付資本의 確保가 없는 限 이물 다른 方法에 의해서 調達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社會에 있어서 漁業의 構造的 特質 때문에 存在할 수 있는 것이 所謂 前期的 商業
資本이다. 이것은 普通 前期的 商業資本家에 의해서 商品의 去來와 高利貸資本의 去來라는
二重的 機能을 同時的으로 遂行하게 된다.¹⁸⁾ 이러한 前期的 商業資本은 歴史的 社會經濟的

18) 文定昌, 朝鮮의 市場, p. 31.

우리나라 水産金融의 問題點과 그 改善策에 關하여

發展段階로 보아서 資本制的 生産方法이 未發達한 生産部門에다 그의 存立基盤을 두고 있으며, 貨幣를 一時的으로 貸付하여 그 使用에 대한 代價를 받는다는 點에서는 近代的 貸付 資本과 相異할 바 없다. 다만 近代的 貸本에 대한 利子의 源泉은 産業資本으로서 그 生産 過程에서 發生하는 價値增殖部分인 利潤의 一部에 있으나, 高利貸資本은 借主의 全生産物에서 그 生産資料를 控除한 殘餘部分 全部에 두고 있다. 이리하여 擴大再生産을 위한 資本 蓄積의 餘地는 없어지고 經營規模는 더욱 零細하여 結局 低生産力을 가져오며, 이 低生産力은 低所得을 結果하며 또한 流通過程에 있어서 缺狀價格으로 말미암아 經營規模의 零細 性을 一層 強化하게 된다. 이러한 現象이 바로 漁村經濟의 低位停滯性을 規制하는 크다란 要因이 되는 것이다.

한편 資本制的 漁業에 있어서는 資金의 供給은 非資本制的 漁業에 比해서는 有利하지만 一般産業部門에 比하면 既述한 바와 같은 理由로 有利한 條件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所要資金의 不足額을 다른 供給源에서 求할 수 밖에 없으며 여기에 所謂 客主라는 前期的 商業資本家가 登場하게 되는 基盤이 마련된다. 우리나라 漁業의 現狀으로 보아서 이러한 資金에 대한 依存度는 地域과 事情에 따라서 差異는 있으나 이와 같은 資金이 우리나라 漁業의 再生産構造에서 차지하고 있는 重要한 位置는 否認할 수 없다. 한편 그것이 漁業者에게 不利하게 作用하여 結局에는 小生産者를 沒落케 한다는 것도 看過해서는 않된다. 即 漁業에 대한 高利貸資本의 自由로운 支配를 放任하게 되면 非資本制的 零細 漁業生産者는 그 地位를 喪失하여 沒落하게 될 뿐만 아니라 資本制的 漁業에 있어서도 資本蓄積의 機會를 喪失하게 되어 結果적으로 水産業發展의 契機를 發見하지 못하게 된다. 水産業의 重要性이 國民經濟的 側面에서 重要視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水産業의 發展은 重要한 課題이므로 水産業에 있어서의 高利貸資本의 自由로운 支配를 防止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 制度의 機構的 整備와 改稱, 水産金融政策 등의 問題가 擡頭되고 있는 것이다.

IV. 水産金融의 構造와 體系

1. 水産金融의 種類

水産金融은 水産經營에 必要한 資金調達을 意味한다. 具體적으로 말하면,

- ① 漁業經營에 대한 金融
- ② 水産物加工에 대한 金融
- ③ 水産物販賣에 要한 金融
- ④ 水産物收集에 要하는 金融 등으로 大別된다.¹⁰⁾

그 中 漁業生産이 水産業의 中樞的

10) 田村正, 村岡夏雄, 谷川英一, 齊藤市郎, 水産學通論, 1955, p. 238.

存在이고 大宗이라 할 수 있으므로 水産金融問題도 漁業經營에 대한 漁業金融이 中心的 課題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漁業金融을 中心으로 보면 漁業金融은 그 資金의 用途如何에 따라서 設備資金의 融通과, 運轉資金의 融通으로 分類된다. 前者는 漁船의 建造, 機關換置, 漁港, 船着場의 改修 등에 要하는 資金이고 이는 3年乃至 6年 或은 그 以上の 長期的 金融이며, 後者는 漁網, 燃油, 人造氷, 餌料, 漁船修理費 등 每年 漁期前에 必要한 資金으로서 2,3個月乃至 1年の 比較的 短期金融이다.

2. 金融體系的 變遷過程

우리나라 水産金融機構는 李朝末, 韓日合邦 以後의 日帝時代, 그리고 解放以後의 水協發足 以前과 水協發足 以後로 大別하여 考察할 수 있다.

1) 李朝末의 水産金融機構

通貨制度가 未發達된 우리나라에 近代的인 金融制度가 導入되기 以前인 李朝末期에는 客主, 旅閩, 契 등이 傳統的인 金融機關으로서 存在하고 있었다. 이러한 前近代的인 金融機關은 商品生産과 市場의 未發達로 말미암아 局地的이며 小規模의 形態를 免치 못하였다. 여기에서 이러한 前期的 金融機關의 業務內容을 잠깐 살펴보면 客主와 旅閩은 商人들의 指定 宿所로서 뿐만 아니라 都賣業, 倉庫業, 委託販賣業, 運送業 등의 營業以外에 金融業도 同時에 兼하고 있었다.

여기에서의 金融業이란 地方商人의 貨物을 擔保로 金錢貸出이나 於音의 發行 및 引受 등 簡單한 것이었으며 信用있는 客主 旅閩의 於音은 貨幣로 交換할 수 있어 이 於音은 一種의 換이나 信用狀의 役割을 하였다. 한편 客主나 旅閩은 商人이나 王室 또는 兩班階級の 遊休 資金을 保管하여 利息을 붙여주는 私的預金機關의 役割도 했다. 契는 官權의 橫暴와 財政의 紊亂으로 一般國民에 대한 無慈悲한 收奪과 한편으로는 天災地變이나 生業에 對 備하여 이웃과의 相互扶助를 目的으로 形成된 것이며 그 發生은 오래된다. 그 種類는 目的에 따라 大略 納稅目的의 契, 利息目的의 契, 共同生活目的의 契, 共同購入을 위한 契, 冠 婚喪祭를 위한 契 등이 있었고 그 中 利息目的의 契와 共同購入을 위한 契는 生産活動을 促進시켰다.

以上の 在來式金融機關中에서 漁業과 깊은 關係를 맺어온 것은 客主와 旅閩이었다. 1876年 江華島條約締結을 契機로 前近代的인 金融制度와 金融機關은 近代的인 金融制度와 金融機關으로 代替 或은 吸收되어 갔으며, 客主와 旅閩 特히 客主는 漁業生産과 流通에서 水産金融의 主要한 部分을 擔當하여 왔다. 歷史적으로 보아서 우리나라에 近代的인 金融制度와 金融機關이 制定乃至 設立된 것은 日本人에 의하여 經營된 第一銀行이 1878年 6月에 釜山 支店을 設置한 것이 그 嚆矢다. 韓國人側의 近代的인 金融機關으로서는 1894年 靑日戰爭以後 朝鮮銀行, 韓城銀行, 帝國銀行 등이 設立되기는 하였으나 겨우 資本主義의 初期段階에

우리나라 水産金融의 問題點과 그 改善策에 關하여

들어선데 不過한 當時의 韓國經濟의 實情으로 말미암아 資本과 經驗의 不足, 利用의 低調로 因하여 閉店되고, 大韓天一銀行, 漢城銀行, 韓一銀行이 營業을 繼續하여 그 後 組織의 變更 등을 通하여 오늘의 商業銀行과 朝興銀行으로 發展하였을 뿐이다.²⁰⁾ 이러한 近代의 金融機關의 融資惠澤도 主로 資力과 擔保能力이 있는 一般工業者와 貿易業者에 置重되었을 뿐 漁業生産者에게는 水産業에 대한 認識不足으로 惠澤이 미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一般銀行의 設立에도 不拘하고 漁業 生産者는 近代의 金融制度의 惠澤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農漁村의 前期的 經營構造를 打破하고 資本制의 商品生産과 貨幣經濟를 浸透시켜 農漁村經濟를 資本主義經濟體制에 再編成하기 위하여 農業資本의 供給을 擔當하는 金融機關의 設立이 要請되었다. 여기에 이러한 要請에 따라 設立된 것이 1906년의 農業銀行條例에 따라 發足된 農業銀行이며, 1907년에는 地方金融組合令에 의한 金融組合이 發足되었다.²¹⁾ 다시 1908년에는 東洋拓殖株式會社法이 公布되어 東洋拓殖會社가 發足하였다. 그러므로 農業銀行과 金融組合, 東洋拓殖會社의 三機關이 主로 農業金融을 擔當하는 農業信用制度의 支柱가 되었으나 여기에서 일어지는 水産金融은 例外的일 程度로 零細한 金額이었다.

2) 日帝時代

韓日合邦以後 諸制度의 改革과 더불어 水産資金은 朝鮮殖産銀行, 東洋拓殖會社를 비롯하여 金融組合 등에서 比較的 低利資金의 融資를 얻을 수 있게 되어 從來의 高利貸資金의 壓迫에서 벗어나는 漁業生産者도 생겼으나 그것은 極히 一部分의 比較的 規模가 큰 漁業生産者에 限定되고 融資의 惠澤은 主로 日本人漁業者에게 돌아갔다. 따라서 韓國人 零細漁業生産者는 資金事情이 惡化되어 日本人의 運搬業者나 高利貸金業者의 客主資金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는 狀態였고 비록 金融機關에서 融資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金額은 所要額의 一部分에 不過했으므로 不足한 部分은 다시 前近代의 金融機關에서 借入하였다. 當時의 漁業金融狀況을 他産業과 比較하여 보면 韓日合邦이 強行된지 9년째인 1918年 現在의 融資額은 農業이 約 4천만원, 商工業이 約 5천만원이었으며 이것을 業者 一人當 平均으로 보면 農業生産者가 3.79원, 商工業者가 34.3원인데 比하여 漁業生産者는 0.56원이었다. 이로써 當時 漁民의 大部分이 高利債에 依存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當時의 水産金融事情을 惡化시킨 또 하나의 理由는 漁業權이 法的으로 認定되지 않고 따라서 物權으로서 取扱되지 않아 擔保의 對象이 될 수 없었다는 데 있다. 이것이 1930年 新漁業令의 實施과 더불어 漁業權이 物權으로서 認定되고 다른 不動產과 같은 財產權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은 韓

20) 林苗民, 韓國의 銀行史, 1963. pp. 33-35.

21) 1910년에 金融組合數는 117個, 1919년에는 338個가 되고 組合員數는 1910년에 43,000名, 1919년에는 133,000名으로 增加하였다.

朴東奎, 前掲書, 1965. pp. 118-127.

林苗民, 前掲書, p.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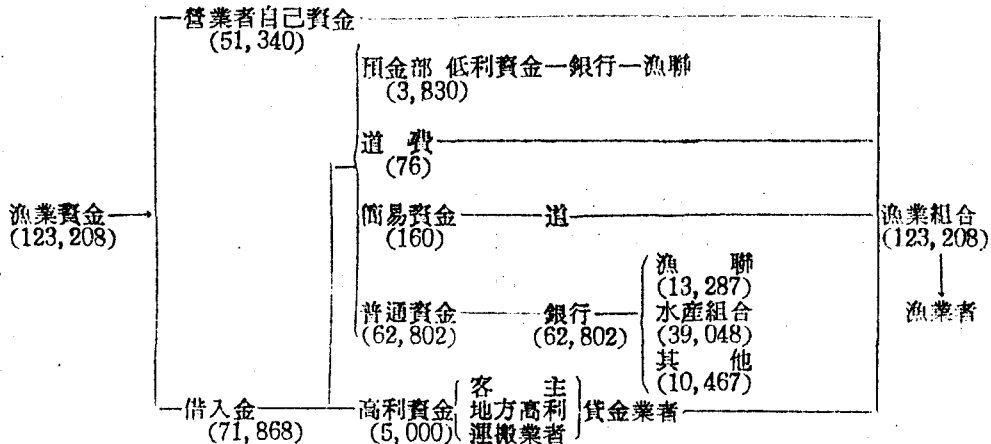
金 融 滯

國漁業開發史上 特記할 만한 일이다.²²⁾ 이로 말미암아 從來의 좁은 融資範圍가 多少 擴大 되었으나 實際上으로는 通漁時代로부터 侵入하여 온 日本人이 合邦과 더불어 大舉 移住하여 漁業生産力이 높은 全國의 好漁場의 大部分을 獨占한 反面, 우리나라 漁民이 所有한 漁場의 經濟的 價値는 劣位를 免치 못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漁業生産者中 이 惠澤을 입을 수 있었던 漁業權所有者는 겨우 40分の 1에 不遇하였고, 漁業權에 의한 水産金融의 融資惠澤도 比較的으로 資力이 있고 規模가 큰 漁業生産者에게 局限되고 小生産者에게는 別다른 惠澤을 주지 못했다. 當時 金融組合과 金融組合聯合會가 殖産銀行(現在의 産業銀行)으로부터 一括 融資를 하여 農漁民에게 資金을 轉貸하였다. 1929年 水産部門에 融資한 것 을 보면 漁船에 915만원, 運轉資金에 640만원, 漁具에 1,230만원 등 計 2,789만원에 達하였다. 財源構成을 보면 其中 自己資金이 1,116만원 殘類 1,673만원은 朝鮮殖産銀行에서 209만 1천원, 東洋拓殖會社에서 20만5천원, 金融組合 및 同聯合會에서 99만4천원, 魚市場 水産金融部에서 40만원, 客主 日本人의 鮮魚運搬業者 및 金融業者에 1,304만원을 借入 充當하였다.²³⁾ 그 後 漁業組合의 整備發達로 低利資金의 貸付를 實施하게 되어 每年 15만원씩 10 個年間 融資되었고, 10年間 据置한 後 3個年에 償還하는 方法이 尋入됨으로써 資金事情이 多少 好轉되었다.

이러하여 漁業資金은 漁業組合 또는 水産組合을 中心으로 運營되고 借入總資金의 9割이 低利資金으로 構成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資金도 亦是 日本人에게 集中되었기 때문에 極少數를 除外한 우리나라 漁民은 高利資金의 依存性에서 脫皮하지 못했다. 여기에 水産資金의 融資系統 및 資金推計를 보면 表1과 같으며 이러한 融資體系는 大體로 解放 直前까지 繼續 되었다.

表 1. 漁業資金融資系統

(單位: 100圓)



資料: 朝鮮總督府「朝鮮水産業」1941年

22) 加藤貞孝, 朝鮮漁業制度要論, 1932. p. 8.

23) 古田敬市, 朝鮮水産開發史, 1954. p. 372.

우리나라 水産金融의 問題點과 그 改善策에 關하여

3) 解放以後 水協發足 以前

8.15 以前の 水産資金融資方法은 各地區別漁業組合 및 水産聯合單位와 各道別漁業組合聯合會를 통한 融資體系를 中心으로 하는 方法과 그리고 個別業者와 銀行 및 高利貸金業者間의 多元的 融資關係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全國적으로 一元化된 融資體系는 成立되지 않았고 資金의 惠澤도 日本人에게 偏重되었음은 이미 指摘한 바와 같다. 8.15 以後의 融資方式은 過渡期를 除外하고 軍政時의 그것은 隨時應分貸出方法, 親分交渉貸出方法, 名目附與貸出方法, 轉貸式貸出方法 등에 의해서 調達되었다. 隨時應分貸出方法이란 國家의 金融資源을 考慮치 않고 業者側의 所要資金의 需要如何에 따라서 水産資金需要申請書를 通해 隨時로 貸出하는 것을 말하고, 親分交渉貸出方法은 漁業經營規模와 事業展望如何 및 優劣과 緩急을 考慮치 않고 業者側과 金融關係者의 親分交渉如何에 따라 融資하는 것이었으므로 資金의 偏在와 他方面에의 轉用이 나타났다. 이리하여 國家적으로 보아서 資金의 效率이 滅殺되었을 뿐 아니라 受信側의 信用墜落과 與信側의 財源渴을 招來하여 이에 대한 是正策이 要求되었다. 그 結果 是正代案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名目附與貸出方法이다. 이것은 從前의 貸出方法이 無分別한 融資形式이었는데 反하여 融資對象의 個別的 名目附與如何에 따라서 貸出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 亦是 親分交渉에 의하여 한 漁業生産者가 數種의 名目下에 二重, 三重의 貸出惠澤을 받는 등 資金의 偏在를 가져 왔다.²⁴⁾ 軍政初期에 金融秩序의 이러한 混亂을 겪은 後 1948년에 이르러 처음으로 綜合的인 國家資金計劃이 樹立되고 計劃에 의한 資本運營이 正常的인 軌道에 오르게 되자 水産部門에도 새로운 融資秩序가 생기게 되었다. 即 韓國水産業會에 金融部를 두고 水産業會의 會員인 各水産團體의 所要資金을 一旦 水産業會로 一括 融資하여 金融部를 通해서 計劃性있게 放出하는 轉貸式融資方法이 採擇되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融資方法이 個別的, 獨目的, 分散的인 것에 비하여 綜合的, 統一的, 一括的으로 傘下 各團體의 所要額을 融資申請하는 것이다. 이 融資方式의 目的과 意義는 當時의 水産業界의 無秩序와 系統組織의 弛緩을 이러한 方法을 通해서 是正하고 傘下 各水産團體에 대한 統率力을 強化 確立하는 同時에 業者 相互間의 適當競争을 調整하는 한편, 與信側으로 보아서 는 債權保全上 團體連帶를 圖謀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融資體系도 資金需要者側으로 보아서 여러가지 弊端이 있었다. 그리하여 1949年 大統領訓示로 同業會가 擔當하고 있던 水産金融事業이 다시 團體資材共同擔保融資方法으로 轉貸됨으로써 그 機能은 喪失되었다. 이 方法은 同水産業會와 水産資金을 專擔하고 있던 産業銀行과의 轉貸式系統融資體系가 무너짐에 따라 地域別 또는 業種別 各水産團體는 産業銀行과의 直接 交渉에 의하여 資金을 調達케 한 것이다. 이것은 各水産團體가 業者割當用으로 保管中이던 漁業資材를 共同低當物로 하여 共同으로 産業銀行에서 融資를 받는

24) 韓國銀行, 水産業에 關한 調査, 1953. p. 110.

方法이다. 그 後 中央銀行의 創設과 더불어 金融政策의 一環으로서 資金計劃에 따르는 融資方法이 樹立되었으나 이것은 受信限度內의 與信原則에 의한 貸出方法이었으므로 激增되는 産業資金의 需要를 充足시킬 수 없었다. 따라서 水産資金도 業界의 借入所要額에 대한 融資限度認定額이 훨씬 低水準에서 決定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融資體系는 다시 各水産團體別 業者個人別로 金融機關과 去來하는 個別去來方式으로 되돌아 가게 되었다. 이 방식에 의하면 分散되어 있는 各漁業者의 個別的 實態把握과 事務管理가 困難했던 것이므로 與信側에서는 貸出金回收와 債權保全上 個別業者와의 去來를 回避하고 數名以上 連帶保證과 所屬團體의 推薦에 의한 融資方式을 採擇하게 되었다.

即 産業銀行이 處理한 連帶貸付는 所屬團體의 長의 推薦에 의하여 同種業者 5人 以上の 連帶保證下에 貸出되었다. 그리하여 政府의 重點融資實施와 더불어 與信側의 貸出金回收를 위한 債權保全第一主義를 採擇하였기 때문에 自然히 水産資金의 融資는 中堅業者로서 構成된 水産組合으로 偏重되고, 따라서 零細漁業者로서 構成된 一般 沿岸漁業組合에는 資金供給이 매우 困難하였다. 이러한 融資上의 矛盾을 止揚하고 系統的 單一體系에 의한 水産金融의 一元化가 水産業界에 要請되었다. 이에 呼應하여 1953年 韓國水産業會를 代身하여 水産中央會가 發足됨으로써 從前의 水産業會가 專擅하던 融資事業을 繼承하여 擔當하게 되었다. 水産中央會가 發足됨에 따라 水産資金融資體系가 一元化되었으며, 財政資金, 對充資金, 歸屬資金 등을 財源으로 하는 組織的인 融資가 産業銀行과 農業銀行을 媒介로 하여 中央會에 의해서 行해지고, 이것이 各水産團體에 轉貸되었다.²⁵⁾ 이 밖에 各漁業者가 個別的으로 市中銀行에서 個別信用과 親分關係에 따라 融資받았으나 이는 資本制의 漁業經營에만 局限되었다. 當時의 融資狀況을 보면 資金需要에 대한 資金供給額의 總對的 不足現象은 1959年에서 1962年까지의 融資實績이 資本所要額의 34% 밖에 되지 않았다²⁶⁾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알 수 있으며, 그 現象은 沿岸零細漁業者에게 더욱 激甚하였다.

8.15 以前부터 水産業協同組合이 發足되기까지 實現된 融資狀況을 보면 表 2와 같다.

1946년에는 共同購入資金, 委託販賣資金, 貿易資金만이 貸出되었을 뿐 漁業資金의 貸出은 전혀 없었고, 1947년에는 共同購入資金, 委託販賣資金에 融資되고 漁業資金은 實際로 相當額이 共同購入 또는 委託資金으로 轉用되었다.

1948년에는 共同購入資金, 委託販賣資金, 漁業資金의 貸出 밖에 없었으며, 1949년에는 所要額 58억 8,460만원中 融資額은 12억 4,700만원으로서 23%가 實現되었다.

內譯을 잠깐 보면 共同購入資金에 7억원, 委託販賣資金으로서 5억 4,700만원이 融資되었고, 漁業資金은 水産業會의 機能喪失로 計劃된 融資 16억원이 전혀 融資되지 않았으며, 設

25) 張慶鎔, 前掲書, pp. 334-336.

26) 金仁台, 朴九秉, 前掲書, p. 242.

表 2. 水產資金의 用途別流出金의 雜修

單位：萬圓

用途別	年度別		1946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漁業資金				15,000	50,000			718,964		33,441	4,704	96,934		135,454	107,675
委託販賣資金			4,500	6,772	22,300	54,700	50,000	250,540		6,336	17,510	52,300		61,550	46,010
共同購入資金				12,000	33,100	70,000	126,030	1,407,286		34,505	14,585	21,100		17,900	9,750
養殖資金							2,300			1,750		2,205		9,200	9,200
製造資金								484,900	842,500	16,420		23,960		13,300	
收集資金				7,813				274,136	388,500	14,382	6,254	34,620			50,600
施設資金								8,000		1,090					
貿易資金			5,000	30,048											
其他								74,315	5,000	6,395	4,050				
計			9,500	56,634	105,400	124,700	178,303	3,143,829	954,665	115,552	258,306	255,014		307,204	247,479

수출입금과 수입금의 用途別流出金의 雜修

資料：韓國銀行，韓國產業經濟十年史

備資金과 復舊資金의 融資가 實現되지 않았으므로 一時借入金 2,300만원으로 이에 代替하였다. 이 때에 ECA對充資金 3억원이 融資되고 5人連帶로 10억원이 融資되었다.²⁷⁾

1951年度에는 商工部에서 6.25 動亂으로 因하여 破壞流失된 漁船, 漁具 등을 復舊키 위해 1,813억7,294천원이 計劃되었으나 軍事費와 緊迫한 資金事情으로 말미암아 662억34,787천원으로 削減하여 財務部 및 韓銀에 要請하였으나 實際融資額은 314억38,294천원 밖에 融資되지 않았다.

1952年度에는 水産綜合生産計劃을 樹立하였으나 資金配定이 大幅 減少된 것과 同年 2月 14日 通貨措置로 融資된 것은 製造資金 842,500만원과 收集資金388,500만원 그 밖에 74,3158천원이었다. 이 期間에는 UNKRA 資金에 의한 漁船 및 漁業用資材의 導入을 企圖하고, 對充資金의 水産部門에의 活用을 推進하였다. 1953年度에는 이미 普及한 바와 같이 個人相對로 融資하던 水産資金을 水産團體의 育成과 系統組織을 確立하기 위해서 水産團體에 一括 融資하여 다시 轉貸하게 되었다. 그것은 다시 資金回收의 簡便과 事後管理를 容易케 하는 結果가 되었다. 이年度에는 所要額 33억47,247천원中 35%에 該當하는 11억55,522천원이 融資되었다. 1954年 4月 1日에 産業銀行이 創立되어 1955年 4月 30日까지의 水産資金 融資狀況은 2억31,523천원으로 全貸出金의 2%에 不過하였다.

1955년에는 總 25억5,014만원이 融資되었는데 이것은 所要額의 37.9%에 該當하는 金額이 된다. 1957年度에는 共同購入資金, 製造資金, 養殖資金의 總 30억7,204만원이 融資되었으며 이는 計劃額의 38.2%가 되는 셈이다. 1958年度에는 漁業資金을 비롯하여 總 24억7,479만원으로 計劃額의 24.1%가 融資되었을 뿐이다. 1955年에서 1958年까지 4年間 平均 融資額은 所要額의 32.7% 밖에 되지 않았다. 1958년에는 이러한 逼迫한 資金事情을 緩和하기 위하여 水産金融에서 疎外되었던 漁民과 水産團體에 對充資金貸下金を 財源으로 하는 2억원의 回轉基金을 設定하여 漁民들에게 融資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 基金은 1959年에도 回轉融資되었으며 同年 9月 17日의 사라초 颶風으로 말미암아 被害를 입은 漁民과 水産團體 등의 被害復舊資金으로 10억원을 當時 一般銀行을 通해서 融資할 計劃이었던 것이 銀行法에 의한 貸出限度關係로 1960年度 부터는 農業銀行을 通하여 放出되었다. 1960年度의 水産資金融資額은 22억원이고, 同年末 貸出殘額은 28억7천만원에 達하였으며, 1961年末 現在 水産資金貸出殘額은 43억원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貸出資金이 各金融機關에서 分散取扱되어 오던 것을 5.16 革命 以後부터는 水産資金을 農協에서 一括적으로 取扱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從前까지 債權保全上 擔保確保를 原則으로 하는데서 自然的으로 除外되었던 零

27) 韓國銀行, 韓國産業經濟十年史, 1955. p. 125.

우리나라 水産金融의 問題點과 그 改善策에 關하여

湖漁民에게도 信用融資制度를 創設하여 三人信用團으로게 貸出하게 되어 融資條件이 大分 緩和되었다.

4) 水協發足以後

水産業協同組合法이 1962年 1月 20日 公布되고 同法에 依據하여 1962年 4月 1日 舊水産 團體가 解体되어 水産業協同組合 및 同中央會가 發足됨에 따라 비로소 水協이 信用業務를 取扱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지금까지 여러 金融機關에 散在되어 있던 水産資金을 水協中央 會가 引受統合하여 直接 取扱하게 되었다. 이것은 水産業의 發展을 위해 水産金融이 水産 業의 動向에 獨自적이고 機動性있게 對應할 것을 要請해 온 業界의 오랜 宿題을 이룩한 셈 이며, 이로써 水産團體의 系統組織이 強化育成되게 되었다. 水協은 信用業務가 시작됨으로 써 必要한 與信資金을 産業銀行으로부터 4억5,000만원, 農協이 8억640만원, 市中銀行 2억 7700만원을 引受한 以外에 新規資金의 確保로 그 與信資金總額이 1965年末에는 무려 22억 7,470만원에 達하였다.²⁸⁾ 水協이 信用業務를 取扱하게 된 以後부터 融資된 財源別貸出의 推移는 財政資金에서 보기로 하고 우선 여기서는 財政資金이 每年 어떤 用途와 目的에 貸 出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 表 3과 같다.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總資金中에서 漁業資金의 比重이 折半을 차지하였으나, 1967年부 터는 漁業資金이 漸漸 減少되고, 그 反面 漁船建造資金이 1967年度를 頂點으로 上昇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漁船建造와 新舊漁船의 代替 등 漁業勢力의 擴充을 위해서 政府가 前에 없이 支援를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고 하겠다.

3. 우리나라 水産金融資金의 構成

1) 財政資金

우리나라 財政資金이 1967年度에는 全貸出資金의 93.6%나 되어 水産金融의 財政依存度가 歴史的으로 높았고, 金融部門貸出金도 農協借入金에 의한 것일 뿐 自己資金調成에 의한 貸出은 全無狀態였다. 이것은 協同組合運動이 日淺할 뿐 아니라 組合員의 經濟的地位가 劣弱한 後進國에 있어서는 協同組合의 組織과 運營, 나아가서는 資金까지 政府의 積極的인 支援가 不可避하다는데 緣由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協同組合運動에 要請되는 自律性이 阻害當하는 많은 問題를 남게 하는 要因이기도 하였다. 勿論 여기에서 말하는 財政資金이란 對充資金, 「운크라」資金을 包含한 政府貸下金을 일컫는 것이지만, 오늘날 漁業生産의 增大, 漁業勢力擴充, 漁業生産力向上, 漁業所得水準의 增大를 어느 程度 가져오게

28) 水産廳, 韓國의 水産, .1967. p.152.

金 融 資 源

될 것은 이 財政資金의 役割이었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漁業生産의 不安定성과 利潤發生의 不確實性으로 말미암아 一般 金融資金의 流入이 極히 制限되지 않을 수 없는 産業의 特殊性이 存在하는데도 不拘하고 生産, 雇傭, 輸出 등 多角的으로 國民經濟에 寄與할 수 있는 産業部門으로 發展해 온 것은 水産部門의 所要資金의 大部分을 政府가 財政資金으로 이를 充當시켜 왔기 때문이며, 이러한 現象은 앞으로 充分한 自体資金의 形成이 없는 限 繼續될 것이다. 만약 水協의 機能이 資金面으로 보아서 財政資金을 政府로부터 貸下받아 轉貸하는데 그친다고 한다면 여기에 政府의 干與를 받아 獨自의 運營이 阻害당하는 重要한 原因이 있는 것이다.²⁹⁾ 그러면 우리나라 水産資金의 貸出金總額에서 財政資金이 차지하는 比率이 얼마나 되는가를 살펴보면 表 4와 같다.

表 4. 財源別貸出金の 推移 (1)

單位: 1000원

年度別 財源別	1963		1964		1965		1966		1967	
	金額	構成比 (%)	金額	構成比 (%)	金額	構成比 (%)	金額	構成比 (%)	金額	構成比 (%)
財政資金	414,305	92.3	576,043	97.2	1,176,514	74.2	1,689,674	76.5	5,394,407	88.0
金融資金	34,740	7.7	16,614	2.8	104,027	6.6	200,700	9.1	390,064	6.4
對充資金	—	—	—	—	305,009	19.2	319,027	14.4	343,790	5.6
合 計	449,045	100	592,657	100	1,585,550	100	2,209,401	100	6,128,261	100

資料: 水協中央會, 年次報告書, 1967. p. 78.
水産年鑑, 1970. p. 202.

財源別貸出金の 推移 (2)

單位: 1,000원

1968		1969		年度別 財源別	1970年末		1971年末		1972年末	
金額	構成比 (%)	金額	構成比 (%)		殘 額	構成比 (%)	殘 額	構成比 (%)	殘 額	構成比 (%)
7,266,298	83.4	9,727,469	74.7	財政資金	12,379	69	13,371	65	4,154	83
1,113,537	12.8	2,991,887	23.0	金融資金	5,507	31	6,834	33	7,814	34
336,138	3.8	303,161	2.3	農安資金	—	—	403	2	675	3
8,715,973	100	13,022,517	100	合 計	17,886	166	20,608	100	22,643	100

資料: 水産年鑑, 1973. p. 180

1963年度の 總貸出金 4억49,045천원中 財政資金은 4억14,305천원으로 全体の 92.3%이
고, 1964年度는 總貸出金 5억92,657천원, 財政資金이 5억76,043천원인 것으로 97.2%, 1965年度

29) 先進國의 境遇에는 主로 組合員의 出資金, 基金 및 積立金 등 自体資金에 의해서 充當되고 있
다. 그러므로 組合運營의 主体성과 獨自性이 維持되고 있다.

Margaret Digby, Cooperation for Fisherman. 1961. pp. 56~59.

우리나라 水産金融의 問題點과 그 改善策에 關하여

는 總貸出金 15억85,555만원中 財政資金은 11억76,514천원으로 74.2%, 1966年度에는 貸出金總額 22억9,401천원中 財政資金(對充資金包含) 20억08,701천원으로 90.9%이던 것이 1967年度에는 61억28,261천원中 財政資金(對充資金包含)은 57억38,197천원으로 그 構成比 93.6%라는 比重으로 大幅 增大하였다. 그러나 1969年度 貸出金の 財源別構成內容은 財政資金이 97億27,469천원으로서 이는 金額面에서 1968年度 보다 33.9%인 24億51,171천원이 增加하였으나, 貸出金構成面에서는 1968年度の 83.4%에 比해 8.7%가 減少되었다. 이와 같이 金融資金은 貸出面에서 顯著한 增加를 보여 1968年度에 比하여 168.7%가 增加하였으나 貸出金構成面에서는 1968年度の 12.8%보다 10.2% 增加한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969年度 農協中央會 借入金 21億09,257천원, 自体預收金 22億07,341천원이 增額된데 基因한다.

한편 1972年度の 財源別構成에서 보는 바와 같이 財政資金 63%를 비롯하여 金融資金이 34%로 年度別 構成比는 財政資金의 增加率 보다 金融資金增加率이, 相對的으로 上昇하고 있다. 이와 같은 原因은 財政貸下金에 있어서 每年 新規貸下額에 比하여 償還額이 漸增하고 있는 反面, 施設性財政資金의 執行上 事業執行遲延에 基因된 것이며 金融資金貸出增加는 1972年度부터 取扱된 一般 水産資金의 韓銀再割供給과 水産政策에 依據한 農協補償資金의 新規供給에 增加要因이 있는 것이다.

2) 對充資金

對充資金은 1965年度에 3億5,009천원으로 同年 貸出金總額의 19.2%를 차지하고, 1966년에는 3億19,027천원으로 同年度 總貸出金の 14.4%, 1967年度에는 3億4379만원으로 5.6%가 되어 金額上으로는 輕微하나마 增大하였고, 同年度 總貸金에 대한 構成比는 顯著하게 低下되었다. 또한 1968년에는 3億3,679만원, 1969年度에는 3億316만원으로서 總貸出金の 3.8%와 2.3%로 各各 나타남은 對充資金 그 自体의 財源이 事實上 크게 擴大될性質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對充資金은 한동안 우리나라의 財政資金이 不足할 무렵 1958년에 金融資金 不足에서 오는 漁業資金의 不圓滑을 緩和하기 위하여 漁民 및 同團체에 對充資金을 財源으로 하는 回轉基金 2億원을 바탕으로 하여 漁業金融面에서 疎外되었던 漁民들에게도 融資의 惠澤을 받을 수 있게 한 事實이 있다.³⁰⁾ 이 資金은 1959年度에도 回轉 融資된 바 있었다.

3) 「운크라」資金

한편 「운크라」資金의 融資狀況을 보면 1963년에 13,558천원, 1964년에 13,558천원, 1965년에 14,838천원, 1966년에 14,838천원, 1967년에 14,838천원, 1968년에 13,838천원, 1969年度에는 12,838천원으로 同年度 總貸出金の 0.1%를 차지하였다.³¹⁾

4) 請求權資金

30) 水産廳, 前掲書, p. 150.

31) 水協中央會, 年次報告書, 1967. p. 201.

金 軟 油

請求權資金이 政府貸下金의 重要한 部分으로서 役割을 하게 되고, 水産金融資金의 財源으로서 登場하게 된 것은 1966年度 부터이다. 元來 이 資金은 賠償金의 性格을 띤 對日請求權資金이나 政府가 水産振興計劃을 積極 推進하고 支援하기 위하여 그 資金의 一部를 水産部門에 轉用케 한 것이다. 이 請求權資金의 水産部門 轉用으로 말미암아 1966年度 政府貸下金의 類例없는 激增現象을 볼 수 있게 되었다.

即 1966年度에 있어서 請求權資金은 2億6,635만원으로 對充資金을 合한 政府貸下金 總額인 20億8,691천원의 13.2%가 되며, 同年 對充資金인 3億19,027천원 보다 若干 낮다. 그러나 1967年度에 들어와서 請求權資金은 一躍 34億47,000만천원으로 大幅 增大되어 財政資金이 53億96,402천원으로 前年度에 비해 3倍 가까운 激增을 보게 되었다.³²⁾ 그러므로 同年度의 對充資金인 3億63,895천원과 「운크라」資金 13,838천원을 合하면 政府貸下金은 1966年度の 20億8,691천원에서 1967年度の 57億74,135천원으로 前例없는 膨脹을 보게 되었다. 따라서 各用途別水産資金의 貸出額도 크게 激增되었음을 알 수 있다.

以上에서 請求權資金이 水産金融資金의 財源으로 轉用됨으로써, 한때 資金難에 허덕이던 水産業界의 融資問題를 緩和하는데 크게 寄與하였다. 傳統의으로 水産業界의 가장 큰 關心事의 하나가 于先 量的으로 充當되어 가고, 生産의 隘路條件이 打開되어 漁業生産力發展의 契機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서 請求權資金으로 인한 水産金融資金事情이 緩和 好轉되었다고 하는 것은 從前의 逼迫한 資金難에 比해서 볼 때 그렇다는 것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相對的인데 不遇하다. 앞으로 漁業經營規模의 擴大 및 水産業의 近代化와 더불어 資金需要는 絕對的으로나 相對的으로 增加될 것이라는 것은 明白한 事實이므로, 資金의 量的인 問題뿐만 아니라 資金의 質的인 效率問題에 關해서도 새로운 認識과 檢討가 加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思慮된다.

5) 一般金融資金

우리나라 水産金融은 財政資金의 增加率 보다 金融資金의 增加率이 相對的으로 上昇하고 있으나 大部分이 아직도 前記한 財政資金에 依存하고 있다. 換言하면 水産金融에 있어서 一般金融資金의 比重이 相對的으로 極히 低水準에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그러므로 全 水産貸出金中에서 一般金融資金의 比重이 높아지고, 또한 重要한 役割을 하기 위해서는 漁業生産에 있어서 自然的 條件의 影響이 緩和되고, 生産의 不安定性이 輕減되는 同時에 生鮮商品으로서의 販賣上의 制約과 利益確保의 不安全性 등이 어느 程度 克服되어 水産業이 産業으로서 資本主義의 發展의 一定한 段階에까지 到達하여야 한다. 그리고 國民經濟의 發展에 의한 銀行資本 또는 融資財源이 增大되는 各産業部門의 資金需要를 充足시킬 수 있을 만큼 增加하여야 한다. 이러한 觀點에서 보면 一般市中金融機關의 金融資金이 水産部門에

32) 韓國水産技術協會, 水産年鑑, 1969. p. 211.

우리나라 水産金融의 問題點과 그 改善策에 關하여

自由로이 流入되기에 是 長久한 時日이 所要인 것이니, 相當한 期間동안 金融資金의 流入은 制約을 받게 될 것이다. 日本에 있어서 金融機關 種類別로 水産資金 貸出額을 보면 一般金融, 系統金融, 財政金融中 一般金融이 首位를 차지하고, 財政金融은 三者中 가장 下位에 머물고 있음은³³⁾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두가지 條件에 基因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總貸出金中에서 財政金融資金이 차지하는 比重이 낮는데 反하여, 一般金融資金의 比重이 5.34 倍나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 事情과는 反對되는 現象이라 아니 할 수 없다. 換言하면 日本의 國民經濟가 크게 發展하여 그 效果와 影響이 一次産業部門에도 波及 乃至 作用되어 從來의 漁業低生産力構造의 規定要因이었던 漁村의 相對的 過剩人口와 經營規模의 零細性, 技術水準의 低位 등이 克服되어 日本의 水産業이 經濟的으로나 技術的으로 比較的 安定된 産業으로서 成立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意味한다.

V. 우리나라 水産金融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우리나라의 水産金融도 水産金融一般이 지니고 있는 特殊性을 지니고 있음은 勿論이거나 韓國만의 特殊性도 또한 지니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水産金融이 그 固有의 特殊性을 띠고 있는 것은 韓國漁業이 他國의 水産業과는 判異한 性格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韓國水産業의 特殊性이 水産金融에 어떠한 影響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여기에서 考察해 볼 必要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水産業의 特殊性은 大部分이 非資本制의 零細漁家에 의해서 經營되고 있다는 特殊性과 直結된다고 보아도 過言이 아니다. 따라서 零細漁家의 特徵을 밝히고 그것이 水産金融에 미치는 影響을 分析하는 것이 必要하다. 零細漁家經濟의 特殊性과 그것으로 인한 水産金融의 特質은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첫째, 消費金融의 性格이 強하다.

우리나라의 水産金融이 消費金融의 性格을 띠는 것은 家族勞動에 의한 漁業이 支配的이라는 데서 緣由한다. 即 漁業勞動構成에 있어서 家族勞動이 차지하는 比重이 크고 雇傭者의 數가 例外일 程度로 적다. 換言하면 賃金勞動이 없는 自家勞動에 의해서 經營되고 있다.

이러한 事實때문에 漁業이 生計的 漁業의 性格을 띠게 되고 經營費의 많은 部分이 消費支出에 充當되기 쉽다.³⁴⁾ 따라서 生産을 위한 金融은 消費金融의 性格을 띠게 된다. 即 經營費와 生計費의 區分이 確實치 않다. 이것은 勞動者가 全部 雇傭勞動者라면 經營費가 生産에 쓰여진다고 볼 수 있는데 反하여 家族勞動의 境遇 그 費用이 家族의 扶養에 使用하여

33) 農村經濟研究所, 世界水産總覽, 1965, p. 877.

34) 이것은 經營과 家計가 未分化 되어 있다고 하는데 緣由한다. 即 어디까지나 漁業生産을 위한 勞動이며 어디까지나 漁業生産과 絶對한 家族勞動인가 하는 것이 分明치 않고 따라서 漁業生産을 위한 支出과 家計消費를 위한 支出이 模糊하게 될 수 밖에 없다.

金 數 考

진다고 보기 쉬운데 基因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境遇 貸付者의 立場으로서는 그 貸付 資金이 生産資金이 되는가, 消費資金이 되는가를 區分하기 困難하게 되며, 따라서 消費의 性格이 濃厚한 經營에 대한 貸付를 歸屬하는 境遇, 漁民은 私金融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消費金融의 性格이 強하므로 貸付資金이 借用者의 手中에서 機能資本으로서의 役割을 다하지 못한다. 따라서 漁民의 大部分은 利潤部分으로서 利子를 갚지 못하고 消費 節約이나 財産의 蝕食으로서만 利子를 갚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負債를 다시 져야 할 立場에 놓이게 된다.

둘째, 利子率이 높다.

金融機關에서 貸付되는 資本은 大體로 보아 財政資金이 많은 部分을 차지하고 있음으로 若干 低利의 傾向이 있지만 私金融에 依存하는 境遇는 相當히 高率의 利子が 形成된다. 우리나라에서 私債利子率이 5分에서 1割 或은 그 以上으로 形成되고 있다는 것은 既知의 事實이며 私債金利가 高率인 理由는 다음과 같다.

① 危險의 負擔率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水産業自体가 自然條件에 左右되는 바 물론 아니라 漁業經營規模가 至極히 零細하고 擔保物이 貧弱하므로 安全度가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貸付者는 高利로써 그 危險負擔을 補充코자 한다.

② 金融機關의 供給資金이 不充分하여 水産資金의 需要를 充足시킬 수 없다. 따라서 私金融의 依存도가 높다.

③ 私金融에 依存하는 것이 比較的으로手續이 簡便하고 언제든지 얻을 수 있다는 利點이 있다(이 때까지의 金融機關의 貸出資金은 그 節次와 手續이 너무 煩雜하여 漁民에게 便利를 주지 못한 點도 있다).

④ 家計費에 充當하는 資金需要는 主로 私債에 依存하는 傾向이 있다. 이것은 非生産的 資金인 家計에 金融機關에서 借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危險負擔率이 높은 資金需要가 私金融機關에 集中하는 傾向이 濃厚했고, 따라서 金利를 刺戟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私債金利가 高率인 事實과 더불어 金融機關의 水産資金金利도 他國에 比해서 甚코 낮은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金融機關의 水産金融의 金利는 商工業의 金融利子와 比較해 볼 때 그다지 낮지도 않다고 볼 수 있으나 私債金融에 比해서는 낮음을 否認할 수 없다.

셋째, 財政金融의 性格이 強하다.

農漁民이 資金供給을 받는 것은 私債와 金融機關을 通하는 두 가지 方法 外에 있으나 水産金融機關의 資金調達은 大體 다음과 같은 方法으로 解決된다. 그 하나는 財政資金의 貸下로서 所謂 貸下資金이다. 둘째로는 韓銀 및 農協借入金이 있고, 셋째로는 水協自体의 造成資金이다. 上記 資金源中 財政資金의 貸下金이 大部分을 占하고 있으나 이것은 後進國社

우리나라 水産金融의 問題點과 그 改善策에 關하여

會의 資金不足과 産業開發에 대한 政府의 役割이 크다는 것을 意味한다. 卽 一般金融機關에서는 漁民에 대해 資金을 貸付하는 것을 躊躇하기 때문에 資金需要에 비해 그 供給은 恒常 不足한 狀態에 있다. 또 그러한 水産資金은 그 金利가 大體로 高率이므로 漁業生産者의 金利負擔이 커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漁業生産者에 所要되는 資金은 低利로 供給할 수 있는 資金調達이 必要하게 되며 이 必要를 充足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財政資金이라고 볼 수 있다. 水産金融에 있어서 財政金融의 比重이 크다는 것은 政府가 金融面을 통해서 水産業을 그만큼 保護하고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고 본다.

한편, 水産資金에 대한 需要가 季節的으로 差異가 있다.

따라서 金融도 季節的인 制約을 받지 않을 수 없다. 農業에서는 3~4月과 10~12月 間에 生産資金과 收集資金이 集中的으로 放出되지만 水産業은 各漁業種類別 漁期에 따라 生産資金과 收集資金의 短期資金이 放出된다. 이것이 農業資金의 放出時期와 一致되게 되면 通貨量을 一時에 膨脹시킬 憂慮가 있고 「인플레이」를 誘發하기 쉽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國家의 財政安定計劃과 더불어 通貨金融政策의 制約을 받는 境遇가 생기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 水産金融의 問題를 要約할 境遇 一般的으로 犯하기 쉬운 方法上의 誤謬는 水産金融의 問題點을 水産金融現象 또는 金融的 側面만을 다루고 問題視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勿論 水産金融도 金融現象을 中心으로 한 問題이므로 그러한 金融問題가 重要하긴 하지만 後進國에 있어서 一次産業의 金融問題는 그것이 다만 金融問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該當分野의 産業政策과 緊密한 關係를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換言하면 原始産業部門의 金融圓滑化를 위한 課題는 金融獨自的인, 그리고 그 金融에 局限해서 解決될 問題가 아니고 農業이던 農業, 水産業이던 水産業의 産業으로서의 確立策이라든가 保護育成策이라는 基礎위에 金融問題나 金融制度가 다루어지고 檢討되어 整備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水産金融의 圓滑化를 阻害하는 要因에는 外部的 條件과 內部的 條件이 있으나 이 外部的 條件인 資金量의 絶對的 不足이라는 것은 國民經濟의 發展과 더불어 解決될 問題이므로 論外로 하고 漁業內部的 事情, 이플테면 自然的 條件의 影響에서 오는 漁業生産의 不安定性, 魚價의 激甚한 變動, 生鮮商品으로서의 販賣上의 制約, 이러한 條件으로 因하여 他産業에 比較해서 커지는 投下資本에 대한 利潤發生의 不安定性 등이 排除되지 않는 限 水産金融의 圓滑化는 이룰 難한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이 經營休數別로 보아 零細한 漁家 漁業이 支配的인 社會에 있어서의 水産金融은 零細經營의 克服과 經營規模의 擴大, 그리고 資本에 대한 利子와 經營者所得, 自家勞動에 대한 勞賃部分 등 機能所得을 確保할 수 있는 近代經營에로의 誘導가 政策的으로 뒤따라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漁業災害補償制度라든가, 魚價安定制度 新規加工用途의 開發, 市場開拓, 流通機構의 合理化라는 것도 漁業生産의 安定化 및 機能所得獲得의 確實化를 꾀하는 것이 된다. 바로 여기에 資本主義的

金 融 活

發展이 되면서 있는 産業에 있어서의 水産金融과 그 回滑한 解決은 水産金融現象만이 아니라, 上記한 水産金融을 阻害하고 있는 諸要因에 대한 諸施策과 産業政策이 先行되고 때로는 同時 並行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理論的 現實的 根據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前提로 하여 먼저 水産金融全般에 대한 問題點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 우리나라 水産金融事情은 周知하는 바와 같이 近年에 와서 年次的으로 財政資金의 增加率 보다 金融資金의 增加率이 相對的으로 增加하는 傾向이 있으나 아직도 政府貸下金이 大宗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自己資金蓄積이 없는 限 不可避하다 할지라도 거의 全般的으로 政府貸下金에 依存한다는 것은 自律的 自主的이어야 할 水協運營과 活動에 여러 가지 制約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水協의 自主的이고 自律的인 運營과 活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漁業生産의 增加와 生産手段의 擴張에 따른 資金需要에 보다 充分히 對應키 위한 自体資金 造成은 마땅히 解決되어야 한다.

現在 水産資金의 需要는 每年 增加하고 있으나 資金調達에 있어서는 漁業生産者의 零細性으로 因하여 自己資本形成은 微弱한 實情에 놓여 있다. 한 때는 水産業에서 發生한 利潤과 收入金마저 一般金融機關을 通하여 都市商工業 등 水産業 밖으로 流出되었고, 反對로 漁業生産者에 대해서는 그러한 金融機關으로부터 資本制限을 強하게 받아 왔다는 것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 그러므로 水協이 協同組合의 本質에 立脚하여 組合員의 奉仕機關으로서 보다 充實하게 機能을 發揮하기 위해서는 自主的인 運營이 不可避하며, 여기에 自体資金造成의 必要性이 強調되는 것이다.

國內 唯一한 水産金融機關인 水協은 信用業務의 重點을 水産資金擴大供給에 두고 資金調達의 開發擴充에 不斷의 努力을 傾注하여 財源確保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둘째, 資金貸出의 原則과 基準은 水産業의 發展과 國民經濟的 見地에서 決定되어야 한다는 것은 勿論이지만, 資金配定이 一部階層과 生産者에게 偏重되어서는 안된다. 아직 回收償還能力이 脆弱한 一部 漁業生産者에 대한 特惠融資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水協組織의 目的에 副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現在 水協制度로 보아서는 信用業務와 그에 隨伴하여 發生하는 事務的인 責任이 水協에 있고 資金配定權은 行政府의 決定에 左右되는 實情이다. 勿論 이것은 水産振興計劃의 推進主體가 行政府이므로 資金配定에 있어서도 計劃推進上 政府의 意思가 反映되고 作用되겠지만 그 中에는 政治的 配慮에 의해서 行해지는 資金轉貸가 不實債權化되는 傾向이 있고, 그 責任은 制度上으로 보아 水協이 背야 한다면 이러한 現象은 水協의 貸出資金財源이 거의 政府貸下金이라는 데서 오는 問題이며, 不實債權이 累積되어 結局에는 不足한 信用資金의 回轉率과 資金効率을 低下시키게 되는 原因이 된다. 이러한 點은 水産業의 生産力發展과 近代化 또는 國民經濟的 觀點에서 是正되어

우리나라 水産金融의 問題點과 그 改善策에 關하여

야 할 것이다. 넷째, 中長期資金 特히 漁船建造 및 機關代價, 裝備改良을 위한 融資金을 通하여 適正船型에로의 移行과, 高性能機關, 最新의 優秀한 技術 및 裝備를 政策的으로 誘導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現 經營規模와 生産構造를 溫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擴大乃至 改善하는 積極적이고 内部的인 指導金融이 되어야 한다.³⁵⁾ 이러한 點에서 水産金融이 單純히 資金供給단의 問題에 그칠 것이 아니라 漁業生産者의 經營規模의 擴大와 技術水準의 向上이라는 漁業生産力發展의 契機를 内部的 實質적으로 造成하고 附與하는 役割까지 擔當하게 되면 우리나라 漁業構造의 質的 改稱이 可能하게 되고 따라서 漁民所得增大와 發展하는 國民經濟的 要請에 對應하는 産業으로서 伸長할 수 있을 것이다.

以上은 水産金融의 問題點을 大略 一瞥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水産金融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方向을 規定짓는다면 먼저 救濟金融의 性格을 脫皮하여 消費金融을 止揚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救濟金融의 性格을 脫皮하여 金融의 基本原則에 依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條件이 整備되어야 한다. 이 基本原則이란

① 水産金融에 있어서는 借用者가 貸付받은 資金을 生産에 投入하여 利潤을 發生하고 元金과 利子를 充分히 갚을 수 있는 境遇에만 貸付 또는 借用하도록 해야 한다.³⁶⁾

② 貸付된 資本이 生産에 投入되어 所得을 發生케 할 수 있는 時期와 貸付金の 償還時期를 一致시키도록 해야 한다. 卽 生産된 所得으로서 갚을 수 있도록 償還時期를 調節해야 한다는 것이다.

③ 貸付된 資金으로서 獲得한 生産要素의 效果가 數年에 걸쳐 元利를 갚을 수 없을 程度라면 最初 一年末에 元利를 償還하도록 해야 한다.

④ 貸付金中 毎年 償還받는 額은 貸付된 資金으로서 所得과 大略 一致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基本原則이라 하는 것은 能力과 人格 및 資本을 갖춘 境遇에만 融資해야 한다는 것이다. 零細漁家の 社會的 性格을 勘案하여 水産金融上 이러한 原則을 지킬 수 있는 方向으로 轉換하여야 될 것이다. 그러나 韓國漁村의 現實情으로는 上記한 原則을 堅持하면서 水産金融을 해 나간다는 것은 至極히 困難하다. 왜냐하면 金融機關이 貸付한 資金을 小生産者가 갖고서 生産에 投入하여 利潤이 發生할 수 있는 擴大再生産을 하자면 漁家の 經營規模와

35) 新川傳助, 日本漁業における 資本主義의 發達, 1958. pp. 386-389.

36) 萬一 이러한 原則이 嚴格하게 適用된다고 할 것 같으면 零細漁家經營이 大部分인 우리나라 漁業者에게는 그 對象者가 極히 制限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原則에 適應하기 위해서는 孤立分散的인 個別經營의 融資를 止揚하고 經營規模가 擴大된 協業經營에 優先적으로 融資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資金供給이라는 方法에 의해서 生産性이 높은 經營形態로 轉換케 하여 構造改善으로 誘引하는 指導金融의 重要性을 意味하게 된다.

構造가 問題다. 卽 貸付하는 사람은 金融原則을 遵守하고 싶으나 받는 사람의 立場은 그것을 지킬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水産金融이 眞正한 意味에서 金融의 役割을 遂行하자면 水産金融의 原則을 堅持할 수 있는 漁業生産者에 대해서만 融資를 하고 救濟金融의 性格을 띤 漁業生産者는 別途取扱을 講求해야 한다. 現下 水協에서는 이들에 대해 事實上 組合金融이라는 信用業務를 取扱하고 있다. 組合金融의 存在理由는 零細經營者가 小生産者로서 殘存하면서 卽 資本制의 水産企業形態를 具備하지 못한 채 資本主義의 發展에 落伍된 社會的 階層의 近代의 信用制度에 발맞추고자 努力한 하나의 過度期的 金融形態라고 본다. 따라서 漁民이 小生産者의 範圍를 벗어나는 境遇에는 이 組合金融은 近代的인 信用으로 發展해야 할 性格의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組合金融이 지니고 있는 特質 卽 近代的인 銀行金融과 다른 點을 指摘하면

첫째, 相互金融이다.

組合員 各自가 出資하고 組合員들이 預金한 것을 다른 組合員들에게 融資하는 金融이라는 點이 一般銀行과 다르다.

둘째, 營利目的이 아니고 組合員에게 奉仕하는 것을 使命으로 삼고 있다. 一般銀行이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데 反해 組合金融은 營利보다 相互金融으로서 組合員에게 資金を 供給해 주는 奉仕를 目的으로 하고 있다.

셋째, 對人信用을 原則으로 한다.

組合員들은 小生産者이며 擔保物이 없는 까닭에 信用으로 融資하여야 한다. 이것은 組合金融이 지닐 수 있는 큰 特徵이다.

넷째, 指導金融이다.

指導金融의 基本目的은 潜在的인 信用力을 지니고 있는 零細漁家를 指導하고 支援하여 生産의이며 價値있는 與信으로 誘導하는 데 있다. 卽 漁民의 生産과 生活를 指導監督할 수 있는 性格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指導金融의 內容이다. 指導金融은 個別漁家의 營漁計劃自体도 指導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다섯째, 系統金融을 原則으로 한다.

組合金融은 銀行金融과는 달라서 서로 組合金融끼리 連結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系統化할 수 있는 性格의 것이다.

여섯째, 組合員當 貸付限度가 限定되어 있다.

이것은 組合金融이 全漁民의인 性格을 띠고 있기 때문에 民主的인 金融을 해야 함으로 限定의 設定이 必要하게 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우리나라 水産信用業務도 以上과 같은 組合金融의 本質에 立脚한 水産金融으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VI. 結 語

貨幣經濟, 信用經濟의 發達과 漁業經營改善의 合理化, 漁業經營의 客觀的 條件의 變化는 漁業生産者에 對하여 資金의 必要性을 더욱 要請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 漁業生産者에 對한 資金需要의 增加現象에도 不拘하고 水産金融은 批的으로 보아 아직 所要資金의 數分의 一에 不過하며 特히 漁業生産者는 生産의 不確實性, 低收益, 資金需要의 季節性 및 擔保力의 脆弱性 등 水産金融의 特性 때문에 金融機關으로 부터의 資本制限을 받아 結局 漁業生産者의 資金調達은 主로 私債나 高利貸資本에 依存하고 있는 實情을 앞에서 고았다. 이와 같은 水産業에 對한 資本制限現象은 漁業生産者에게 資本의 不足을 招來케 하고, 이 資本의 不足은 經營規模의 零細性을 規制하는 主要原因이 되며, 다시 이것은 資本裝備率의 低下를 不可避하게 한다. 經營規模의 零細性은 漁業의 基本的 生産手段인 漁船의 規模에 集約的으로 表現되어 漁場의 操業日數를 規制한다. 보다 豊度가 높은 漁場에의 進出이 阻止되어 豊度가 낮은 漁場에서 操業하지 않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季節的, 氣象的 條件에 支配되기 쉬운 것도 漁船規模가 작기 때문이며, 資本裝備率을 높혀 보다 生産이 確實한 漁業技術과 積極인 漁法의 選擇을 不可能하게 하는 것도 여기에 基因한다. 이러한 것은 모두 資本의 不足에 그 原因이 있으며, 窮極的으로는 漁業生産性을 低下시키는 結果를 가져온다. 反對로 資本의 不足을 規制하는 原因은 漁業經營의 不安定이라 할 수 있으며 그 原因으로서의 첫째 經營規模의 零細性, 둘째 技術水準의 低位, 셋째 經營이 孤立分散되어 相互間의 競爭이 激甚할 뿐만 아니라 漁獲物의 商品的 特質과 流通機構의 未備로 收益率이 낮고, 넷째 資本制限으로 말미암아 私債依存度가 높으므로 金利負擔이 過重하여 結局에 가서는 擴大再生産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經營의 不安定을 克服할 수 없게 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資本不足現象을 招來하는 또 하나의 要因으로서의 自己資本蓄積이 貧弱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水産業의 發展背景에 있어서 漁業의 資本主義的 發達이 낮은 데다가 오랜 歷史를 通하여 日帝와 高利貸的 商業資本家의 收奪對象이 되어 왔기 때문에 原始的 資本蓄積의 機會가 처음부터 缺如되었던 事實도 看過해서는 않된다. 이로 인하여 漁業生産者는 外部資本의 依存度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金利負擔의 過重으로 擴大再生産이 어렵게 되므로써 經營規模의 零細性과 低位生産性을 脫皮할 수 없다.

以上과 같이 資本의 不足, 經營規模의 零細性, 技術水準의 低位 등은 漁業生産性의 低位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低生産性을 特徵으로 하는 零細經營構造의 打開 乃至 克服이 不可缺한 要因이 되며 여기에 構造改善策의 重要性이 있고, 生産政策과 所得政策도 窮極的으로는 構造改善策에 의해서 持續的 效果를 期待할 수 있다.

現在 水産部門財政投融資에 의해서 投融資對象이 된 經營階層에서는 生産過程에 있어서

機械化가 部分的으로 進行되고 있으나³⁷⁾ 여기에서 問題가 되는 構造改善이라는 것은 沿近海漁業에 있어서 零細漁家가 壓度的多數를 占하고 있는 漁業構造의 基底層의 構造改善을 말하는 것이다. 水産業에 있어서 經營體數나 漁業從事者數로 보아서 거의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零細經營에 대한 生産性向上과 所得增大는 綜合的이고 積極的인 構造改善策에 의해서 成熟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生産共同化(協業化)의 育成策이 問題解決의 一方法이 될 것으로 본다. 水産業에 있어서는 沿岸漁場의 荒廢로 만미암아 近海와 遠洋으로 操業漁場을 擴大하고 生産手段의 小規模로 말미암아 免할 수 없는 勞動日數의 短縮을 克服하기 위해서도 大型漁船과 資本裝備率의 高度化가 必要하게 되고, 새로운 流通市場秩序에 對應하지 않으면 안된다. 消費構造의 變化, 工業原料供給이라는 課題에 當面하여 生産過程에서는 生産性向上과, 流通過程에서는 品質向上, 規格統一, 生産費切下 등을 保障하기 위해서 大量生産, 大量去來, 市場選擇에 의한 費用節減과 收益增大를 企圖할 必要가 있다. 따라서 漁業構造改善策의 一環으로써 生産共同化를 指向하여야 한다. 이것은 協業組織으로써 協業漁業, 水産企業에 이르기 까지 適用할 수 있다. 生産共同化에도 여러가지의 類型이 있으나 그것은 段階的으로 與件에 맞게 選擇할 수 있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水産業構造内部에 廣範圍한 底邊構造의 基底層을 形成하고 있는 零細漁家의 漁業生産者는 水産經營에 必要한 資金의 供給과 供給資金의 調達을 위한 資金의 借入 및 造成을 爲始한 水産金融의 逼迫現象에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分析을 통해서 보았다. 그 가운데에서 水産資金의 絕對額不足과 또한 不足한 水産資金 그것마저도 生産資金으로서의 圓滑한 管理와 效率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水産金融이 當面한 가장 重要한 問題이며 또한 時急히 解決을 要하는 問題다. 이와 같은 問題의 解決을 위해서는 最近 漸次 減少一路에 있는 財政資金貸下金의 規模를 더욱 擴大하고 한편으로 水協系統 組織의 強化와 漁村의 協同組合運動을 一層 振作시켜 漁村資金의 水協系統吸收을 통한 自体資金造成運動에 더욱 拍車를 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供給資金의 消費資金化의 傾向을 止揚키 위해 資金管理主體側에서는 기회 組織된 漁協組織을 十分利用하여 指導事業과 信用事業이 相互 有機的 關聯을 맺을 수 있도록 融資對象의 漁業生産者의 漁業經營指導에 積極 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周知한 바와 같이 生産組織을 共同化 乃至 協業化 하는 것도 하나의 効果的인 方法이 될 것이다. 要컨데 水産金融問題의 解決이 바로 水産業發展의 關鍵이 된다고 보아 질 때 水産金融의 特質과 現象을 보다 正確히 把握하고 그것이 우리나라 水産業發展에 미치는 效果를 實際的 理論的으로 分析해 보는 일은 매우 意義있는 것이므로 여러가지 側面에서 이 問題는 綜合的이고 体系的인 研究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釜山女子專門學校 專講)

37) 最近 遠洋漁業의 急激한 伸張과 養殖漁業의 發達로 우리나라 水産業은 量的 成長과 質的 構造의 樣相이 크게 變貌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前近代의인 漁業構造가 어느 程度 近代의인 面貌를 갖 추게 된 것도 事實이다.